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 학술대회 개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주제로 여러 부대 행사 진행

유선종 기자 | face77@naver.com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4 회 정기총회 · 학술대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가 주최하는 제 34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7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 콜로라도 덴버 시에서 개최됐다.

미국 전역에서 600 여 명의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70 명의 교육 관계자 및 내외 손님이 참석해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에 관한 강의와 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전시 및 상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성균관대학교 전현 교수는 7 월 15 일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애국가를 4 절까지 노래해 큰 감동을 받았다”며, “동포 차세대 학생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날인 7 월 16 일 기조 강연에서는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의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어의 정의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학술대회는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외교부,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청주시, 경상북도, 동북아역사재단, 주미한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등이 후원했고, 김구재단, 독도재단, 예뽕한복, 정주영 기념 미주재단, 사이버외교사절단 VANK 가 협찬했다.

학술대회 사전행사로 ‘제 7 회 한국어교사 집중연수회’와 ‘한국학교 운영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집중연수회는 지난 2008 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본 협의회를 후원해 온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을 비롯해 이중언어학회 소속 한국어 교수들이 참석해 강의를 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4 회 정기총회 · 학술대회.

처음으로 실시된 한국학교 운영자 워크숍은 35 명의 교장, 교감 등의 운영자들이 모여 학교 운영 방법을 공유하고 한국학교가 극복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자 워크숍은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으며 아이코리아가 협찬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올해 발행된 표준 평가 문항집과 SAT 한국어 교재 발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표준평가 문항집과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SAT 한국어 교재는 그동안 평가 도구를 기다려 온 많은 선생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별히 주류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글과 한국 문화와 역사를 주류사회에 소개하는 ‘한국문화체험관’이 개설되어 주류 사회 학생, 교사와 학부모를 초청해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독도 사진 촬영, 직지 금속활자 인쇄 체험, 전주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전통 혼례 체험, 한지 부채 손글씨 쓰기, 한국 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에 타 인종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번 한국문화 체험관은 고인쇄박물관, 독도재단, 대한제국공사관, 예뵘한복, 전라북도, 한글박물관과 지역협의회가 후원했다.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14 개 지역 대표 학생들이 참여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수상 학생 등 전국의 학생 대표와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학교 대표 학생 등 총 50 명이 함께하는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도 진행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는 한국의 탈을 만드는 시연과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한국 역사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개토대왕, 직지를 만든 사람들,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아름다운 나라를 꿈꾼 김구 선생님과 관해 4 그룹으로 나눠 돌아가며 공부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미국 전역에서 온 대표 학생들과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역사를 배우고 토론하며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7 월 16 일 오후 제 34 회 정기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 5 가지 조항이 통과됐고, 13 대 이사장과 18 대 총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됐다. 제 13 대 재미한국학교 이사장에는 고은자 동북부지역 선출이사가 선출되어 2019 년 8 월 말까지 3 년 임기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8 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에는 제 17 대(현 집행부) 이승민 부회장이 선출됐고, 제 18 대 부회장에는 제 17 대(현 집행부) 오정선미 사무총장과 장은영 북가주지역협의회 회장이 선출되어 2018 년 8 월 말까지 2 년 임기로 업무를 맡는다.

한편, 제 35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2017 년 8 월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